

국가교육위원회 2026년 제6차 회의

의안번호	제2026-16호	심의 · 의결 사항
심의·의결 일자	2026. 6. 11.	
공개여부	공개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요청 사항(접수번호 제2026-1호) 진행 여부

제 출 자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제출일자	2026. 6. 11.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요청 사항(접수번호 제2026-1호) 진행 여부

I. 배경 및 경과

□ 배경

- 교육부는 국가교육위원회에 중·고등학교 역사 관련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요청(접수번호 제2026-1호, '26.3.31.) [☞ \[붙임 1\] 참고](#)

<교육과정 수립·변경 요청 사항>

❖ 개정 요청 사항(3개)은 교육과정 변경 여부·적용 시기 등에 대한 개별 검토·심의 요청

1. 중학교 「역사」 근현대사 확대

- '학교 역사교육 활성화 방안' 근현대사 교육 내실화 취지를 고려하여 중학교 「역사」 한국 근현대사 성취기준 비중 상향 조정(현행 20% → 조정 30% 이상)

2. 중학교 사회 교과군(사회·역사·도덕) 교육 시간 확보

- 중학교 사회 교과군 기준 수업 시수 감축 편성·운영을 제한하고, 역사 시수 자율적 확대 근거 제시(204시간 이상 편성·운영 가능)

3. 고등학교 선택과목 신설

- 역사 탐구 과정을 통해 역사 콘텐츠를 분석·비평하며 미디어 수용 태도를 함양하는 <가칭> 역사 콘텐츠 비평·분석 고등학교 선택과목 신설

□ 경과

- 국가교육위원회는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진행 여부에 대한 **전문위원회 사전검토 및 모니터링단 의견 수렴** 실시('26.4.8.~6.1.)

*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 국가교육과정 **전문위원회** 사전검토('26.4.8.~6.1., 온·오프라인 총 5회)

※ 수립·변경 내용 설명 및 질의·응답(4.8.) → 기초 검토·논의(4.15.) → 전문가 의견 청취 및 논의(4.22.) → 위원별 검토(4.23.~5.6.) → 심층 검토·논의(5.13./ 5.20.)

-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 의견 수렴('26.4.20.~6.1., 온라인 총 10회)

※ 수립·변경 요청 확인 및 논의(4.20.~4.22., 6회) → 종합논의(4.27., 2회) → 단원별 의견 제출(5.1.~5.10.) → 의견 수렴 내용 분석(국가교육과정 연구센터) → 의견 수렴 결과 공유·검토(단원 전체, 5.27., 2회)

II. 국가교육과정 전문위원회 및 모니터링단 의견

○ 국가교육과정 전문위원회 사전검토 결과 [☞ \[붙임 2\] 참고](#)

1. 중학교 「역사」 근현대사 확대

- 교육부가 요청한 중학교 「역사」 근현대사 확대에 대해 반대 의견이 비교적 우세함
- 다만, 민주시민교육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형성함

2. 중학교 사회 교과군(사회·역사·도덕) 교육 시간 확보

- 교육부가 요청한 중학교 사회 교과군(사회·역사·도덕) 교육 시간 확보에 대해 부정적 의견이 대다수임
- 논의 결과, 학교 교육과정 자율성, 교과 간 형평성, 총론 체계의 정합성 등을 고려했을 때, 개정의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음

3. 고등학교 선택과목 신설

- 교육부가 요청한 고등학교 선택과목 신설에 대해 반대 의견이 비교적 우세함
- 다만, 학생들의 비판적 미디어 수용 역량 함양 필요성 자체에는 공감대가 있었음

○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 의견 수렴 결과 [☞ \[붙임 3\] 참고](#)

1. 중학교 「역사」 근현대사 확대

- 교육부가 요청한 중학교 「역사」 근현대사 확대에 대해 동의 의견이 다수 제시됨

2. 중학교 사회 교과군(사회·역사·도덕) 교육 시간 확보

- 교육부가 요청한 중학교 사회 교과군(사회·역사·도덕) 교육 시간 확보에 대해 동의 의견보다 동의하지 않는 의견이 비교적 많은 경향을 보임

3. 고등학교 선택과목 신설

- 교육부가 요청한 고등학교 선택과목 신설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의견보다 동의 의견이 비교적 많은 경향을 보임

Ⅲ. 심의·의결 사항

- 중·고등학교 역사 관련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요청(접수번호 제2026-1호) 사항에 대한 국가교육과정의 수립·변경 진행 여부를 심의·의결

※ 교육부는 개정 요청 사항별로 개별 검토·심의 요청함

1. 중학교 「역사」 근현대사 확대
2. 중학교 사회 교과군(사회·역사·도덕) 교육 시간 확보
3. 고등학교 선택과목 신설

Ⅳ. 향후 일정(안)

- (진행 가결 시)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계획(안) 심의·의결

※ (국가교육과정 전문위원회·모니터링단) 계획(안) 검토 및 의견 수렴 실시 예정

요청 구분	교육부 요청	접수 번호	
요청 제목	중·고등학교 역사 관련 「2022 개정 교육과정」 개정 요청		
담당관(부서장)	소속 동북아역사대응팀	직위(직급) / 성명	성명 ○○○
담당자	소속 동북아역사대응팀	직위(직급) / 성명	성명 ○○○
	전화번호	이메일	
적용 대상	<input type="checkbox"/> 유치원 <input type="checkbox"/> 초등학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중학교 <input checked="" type="checkbox"/> 고등학교 <input checked="" type="checkbox"/> 특수 <input checked="" type="checkbox"/> 직업 <input type="checkbox"/> 기타()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현대사 교육은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과거와 연관 지어 탐구함으로써 현대사회를 통찰할 수 있는 핵심 요소이나, 중학교 「역사」 근현대사 분량·시수 제약으로 교육에 어려움 발생 ○ 교실 내 급속히 확산 중인 역사 부정·왜곡에 대한 현장 교사들의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이에 대응하여 학생의 주체적 미디어 수용 태도를 기르는 교육과정 체계 부재 ☞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충족하고, 미래 세대가 민주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학교 역사교육 활성화 추진 ※ 국정과제 100-2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역사교육 강화’ 		
요청 내용	<p>❖ 개정요청 사항(3개)은 교육과정 변경 여부·적용 시기 등에 대한 개별 검토·심의 요청</p> <p>【1. 중학교 「역사」 근현대사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역사교육 활성화 방안’ 근현대사 교육 내실화 취지를 고려하여 중학교 「역사」 한국 근현대사 성취기준 비중 상향 조정(현행 20% → 조정 30% 이상) - (개정 사항) 중학교 「역사」 각론을 개정하여 내용 체계 조정 ※ 중학교 「역사」 개정을 추진하되, 현행 교육과정에서 중학교 「역사」-고등학교 「한국사」 시대 비중이 관련되어 있으므로, 고등학교 「한국사」는 교원·학계 등의 의견을 바탕으로 필요시 검토 <p>【2. 중학교 사회 교과군(사회·역사·도덕) 교육 시간 확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학교 사회 교과군 기준 수업 시수 감축 편성·운영을 제한하고, 역사 시수 자율적 확대 근거 제시(204시간 이상 편성·운영 가능) - (개정 사항) 교육과정 총론 중학교 편제와 시간 배당 기준에 단서 규정* 삽입 * ⑤ 사회(역사 포함)/도덕 교과는 기준 수업을 감축하여 운영할 수 없다. 다만, 역사는 역사 수업 시수와 학교자율시간 등을 활용하여 총 204시간 이상 편성·운영할 수 있다. <p>【3 고등학교 선택과목 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사 탐구 과정을 통해 역사 콘텐츠를 분석·비평하며 미디어 수용 태도를 함양하는 <가칭>역사 콘텐츠 비평·분석 고등학교 선택과목 신설 - (개정 사항) 교육과정 총론 고등학교 보통교과 개정·각론 개발 		
기대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학교) 근현대사 교육 제약 여건에서 형식적인 근현대사 교육이 이뤄지는 현장 어려움을 해소하고 중학교 단계부터 근현대 역사 전개 이해 도모 ○ (고등학교) 디지털 전환 시대에 일상에서 향유하는 역사 콘텐츠를 분석·비평하고 직접 기획하는 경험을 제공하여 학습자 주도의 주체적 역사 인식 형성 제고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가 교육과정 수립·변경 요청서를 제출합니다.

(별첨)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일부개정 예시(안) 1부

2026년 3월 31일

교육부장관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귀하

□ 중학교 역사 시수 확대

현 행	개정안
<p>3. 중학교</p> <p>가. 편제와 시간 배당 기준</p> <p>① 1시간 수업은 45분을 원칙으로 하되, 기후 및 계절, 학생의 발달 정도, 학습 내용의 성격, 학교 실정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p> <p>② 교과(군)별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배당은 연간 34주를 기준으로 3년간의 기준 수업 시수를 나타낸 것이다.</p> <p>③ 총 수업 시간 수는 3년간의 최소 수업 시수를 나타낸 것이다.</p> <p>④ 정보는 정보 수업 시수와 학교 자율시간 등을 활용하여 68시간 이상 편성·운영한다.</p>	<p>3.중학교</p> <p>가. 편제와 시간 배당 기준</p> <p>①~④ 동일</p> <p>⑤ <u>사회(역사 포함)/도덕 교과(군)은 시수를 감하여 편성·운영할 수 없다. 다만, 역사는 역사 수업 시수와 학교 자율시간 등을 활용하여 총 204시간 이상 편성·운영할 수 있다.</u></p>

□ 고등학교 선택과목 신설

현 행	개정안
<p>4. 고등학교</p> <p>가. 편제와 시간 배당 기준</p> <p>3) 보통 교과</p> <p>사회(역사/도덕 포함) 융합 선택</p> <p>여행지리,</p> <p>역사로 탐구하는 현대 세계,</p> <p>사회문제 탐구,</p> <p>금융과 경제 생활,</p> <p>윤리문제 탐구,</p> <p>기후변화와 지속가능한 세계</p>	<p>4. 고등학교</p> <p>가. 편제와 시간 배당 기준</p> <p>3) 보통 교과</p> <p>사회(역사/도덕 포함) 융합 선택</p> <p>여행지리,</p> <p>역사로 탐구하는 현대 세계,</p> <p><u>역사 콘텐츠 비평·분석</u></p> <p>사회문제 탐구,</p> <p>금융과 경제 생활,</p> <p>윤리문제 탐구,</p> <p>기후변화와 지속가능한 세계</p>



「학교 역사교육 활성화 방안」(26.2.) 관련

교육과정 개정 요청 설명자료

2026.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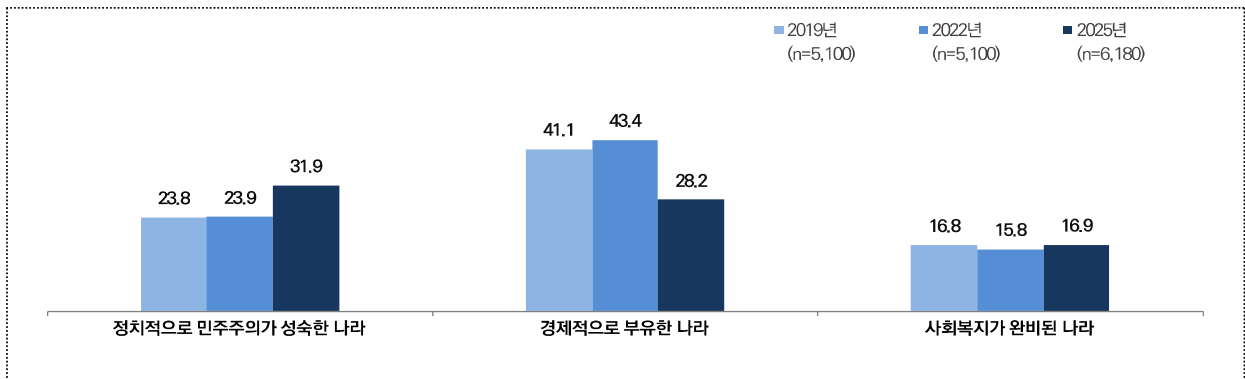
교 육 부

I. 추진 배경

- 우리 국민은 “민주주의가 성숙한 나라”를 미래 사회상 1순위로 희망하나, 사회갈등 체감은 여전히 높고 민주화 과정 인식·이해는 부족
- 오늘과 맞닿아 있는 근현대사 교육은 현대사회를 성찰할 수 있는 핵심 요소이지만, 고등학교 이전 근현대사 교육은 형식적 수준

[참고] 국민이 희망하는 미래의 우리나라(문체부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 '25.12.)

(단위: %)



- ※ (’25년 민주화운동인식도 조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회갈등 인식(여당/야당 갈등 → 84.5점, 진보/보수 갈등 → 84.4.점), △민주화운동 역사 인식 수준 56점(전년 대비 2.5점 ↓)
- 공적 근거가 충분한 역사적 사실을 의도적으로 왜곡·부정하고 허위로 퍼뜨리는 역사 부정이 국내외적으로 확산되는 추세
 - ※ ‘홀로코스트 관련 텔레그램 콘텐츠 49% 사실 부정·왜곡’(영국 옥스포드 연구소, ’22.7.) ‘5·18 왜곡에 벌금형·무더기 기소 … 특별법 제정 4년만’(연합뉴스 등, ’25.7.6.)
 - 사회 쟁점으로 부각 된 역사 부정 현상은 SNS, 미디어 등을 거쳐 교실로 유입되며, 역사 수업을 어렵게 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
 - ※ ‘역사 콘텐츠의 오류와 편향성’으로 인한 수업 운영 어려움 82.0%(2025 중등교사 설문)
- 역사교육은 자료를 탐구·해석하고, 다원적 관점에서 토의·토론 통해 비판적 사고를 촉진함으로써 민주시민 역량 함양에 기여

⇒ 깊이 있는 역사 탐구·체험을 통해 미래 세대를 민주사회 구성원으로서 성장하도록 지원하고자 「학교 역사교육 활성화 방안」 마련·추진(’26.2.~)

II. 역사 교육과정 개정 필요성

① 중학교 「역사」 근현대사 비중 부족

【역사 교육과정 현황 및 문제점】

- (중학교 근현대사 교육 제약) 국정교과서 폐지(17) 이후 역사과 단독 개정된 2018 교육과정*부터 중·고등학교 간 한국사 시대 불균형 심화
 - * (2018 역사 교육과정 시대별 성취 기준 비중) 중학교 「역사」 전근대 83% : **근현대 17%**, 고등학교 「한국사」 전근대 23% : **근현대 77%** → 시대 구분을 통한 중·고등학교 계열화
- 2018 교육과정 구조를 유지한 2022 교육과정에서도 중학교 「역사」 과목 내 근현대사 비중이 부족하여 근현대사 교육 어려움 발생

[참고] 2022 개정 교육과정 역사과 교육과정 한국사 교육 체계·편성

학교급	한국사 시대 비중(성취 기준 수)		편성	비고
	전근대(고대~조선)	근현대(개항~현대)		
중 「역사」	16개(80%)	4개(20%)	주당 2-3시간	역사1(세계사) 2학년 역사2(한국사) 3학년
고 「한국사」	9개(35%)	17개(65%)	주당 3시간	수능 필수('16~)

【해외 주요국 근현대사 교육 사례】

- (해외 역사교육) 유럽 주요국에서는 중등 단계부터 근현대사 중심으로 분량이 확대되며 일본은 필수과목으로 근현대사 과목 지정
- 역사 이해와 함께 역사 자료를 해석·탐구하는 깊이 있는 학습 지향

[참고] 해외 주요국 근현대사 교육 사례

- ▶ 영국 → 초등에서는 전근대사, 중등 단계에서는 학교급이 올라가며 근현대사 위주 학습
- ▶ 독일 → 주별로 차이는 있으나, 8~12학년(중2~고3) 시기, 근현대사 중심 학습
- ▶ 프랑스 → 프랑스 공화정에 대한 역사를 강조하며, 중·고등학교 근현대사 집중 학습
- ▶ 일본 → 고등학교 필수과목으로 근현대 일본사와 세계사를 함께 배우는 '역사 총합' 편성
※ 일본은 '일본사 탐구'(전근대 50:근현대 50) 과목을 선택과목으로 편성

② 중학교 사회 교과군(사회·역사·도덕) 편성·운영 제약

【역사 교육과정 현황 및 문제점】

- (중학교 사회과 시수 운영) 학교 여건 등에 따라 기준 시수의 증감이 가능*하며, 조사 결과 전국 중학교 46.2%에서 기준 시수 감축 운영 중

* (중학교 시간 배당 기준) 사회(역사 포함)/도덕 510시간 → 학교 여건에 따라 20% 증감 가능

-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국가·사회적 요구를 고려하여 핵심 역할을 담당하는 사회과 교육과정 기준 시수의 안정적 운영 기반 필요

[참고] '2025학년도 입학생 전국 중학교 사회(역사 포함)/도덕 교과군 수업 시수 편성 현황

구분	감 운영							기준	증 운영			총계
	408	425	442	459	476	493	소계		544	578	소계	
운영 시수	408	425	442	459	476	493	소계	510	544	578	소계	331
시수 증감량	-102	-85	-68	-51	-34	-17		0	+34	+68		
학교 수(교)	5	1	17	9	105	16	153	170	7	1	8	331
비율(%)	1.5	0.3	5.1	2.7	31.7	4.8	46.2	51.4	2.1	0.3	2.4	100

※ 17개 시도 무작위 표본을 선정하여 전체 중학교 3,292교 중 331교 조사 결과

- (중학교 「역사」 수업 운영) 사회과 기준 시수(510시간)를 사회/역사/도덕과가 분할하며, 「역사」 과목은 대부분 170시간(89.7%) 운영

※ 역사과는 170시간을 2학년 역사①(세계사 영역)/3학년 역사②(한국사 영역)에 나누어 편성하며, 대다수 학교는 3학년 역사②(한국사 영역)에 68시간(주당 2시간) 편성

[참고] 2025학년도 세종시 관내 중학교(28개교) 역사과 시수 편성·운영 현황

구분	51시간 (주당 1.5시간)	68시간 (주당 2시간)	85시간 (주당 2.5시간)	102시간 (주당 3시간)
역사①(세계사 영역)	-	3개교(10.7%)	3개교(10.7%)	22개교(78.6%)
역사②(한국사 영역)	1개교(3.6%)	21개교(75.0%)	3개교(10.7%)	3개교(10.7%)

- 「역사」는 시계열성에 따라 구성되어 학기 말 편성되는 근현대사 교육에 제약이 있고, 학습 요소*로 인하여 교육과정 재구성 한계 발생

* '교과용 도서 편찬상의 유의점'에 학습 요소 반영(세계사 영역 65개, 한국사 영역 56개)

※ (중학교 「역사②」 대단원 편성) 1. 국가의 형성과 발전 / 2. 통일신라와 발해 / 3. 고려의 성립과 변천 / 4. 조선의 성립과 발전 / 5. 조선 사회의 변동 / 6. 근·현대 사회로의 전환

근현대사 교육 확대에 대한 목소리

- (근현대사 교육 확대 언론보도) 다수 언론사에서 중학교 「역사」 근현대사 교육 제약 상황에서 근현대사 분량 시수 확대 내용을 비중 있게 보도

- ▶ (한국일보, 2.26.) 중3 때 쫓기듯 배우던 근현대사, 비중 늘리고 제대로 배운다
- ▶ (헤럴드경제, 2.26.) 짙게 배우던 근현대사 중학교서 비중 늘린다... 학교 역사교육 활성화
- ▶ (연합뉴스, 2.26.) ‘중학교 역사교육’ 근현대사 비중 높이고 수업 시수도 늘린다

- (역사 교원) 중·고등학교 간 전근대-근현대 시대 비중에 따른 계열화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이나, 중학교 「역사」 시대 비중에는 부정 응답

- ▶ 민주시민 역사교육 현황과 방향 탐색 정책연구 설문(중등 역사교사 1,906명 응답, '25.12.)
 - 중·고등학교 한국사 시대 비중 구분 계열화 구조(부정 26.9/보통 23.4/긍정 49.7)
 - 중학교 전근대사/근현대사 비중 적절성(부정 41.3/보통 26.3/긍정 32.4)
 - 고등학교 전근대사/근현대사 비중 적절성(부정 31.2/보통 27.4/긍정 41.5)
- ▶ 역사교사단체 간담회 ‘학교 역사교육’ 강화 공약 관련 현장 교원 의견('25.7.)
 - 3학년 2학기 고입 등으로 인해 근현대사 영역은 형식적 운영이 불가피하여 시수 확대 요청

- (역사(교육) 학계) 한국사 학계는 2018년 교육과정 전근대/근현대 구분 본격화 이후, 수능 필수과목인 고교 「한국사」에 전근대사 확대 필요 주장
 - 역사교육 학계는 중학교 「역사」-고등학교 「한국사」 현 계열성 유지 필요 입장이나, 주제 중심 구성 등 새로운 접근 필요성에 대한 의견도 존재

【역사학계 의견】

- ▶ 국정과제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역사교육 강화’ 관련 한국사 시대사별 학회 간담회('25.8.)
 - “초·중·고 간 한국사 교육 계열화 필요, “한국사의 근현대사 편중 완화 필요”(A학회)
 - “고등학교 「한국사」 전시대를 아우르는 통사 체제로 변화 필요”(B학회)
 - 역사학회 “중·고등학교 역사 교과서 모두 통사적 개설서 방식 구성 필요”(C학회)
- ▶ 한국고대사학회, 한국고고학회 등 선사·고대사 관련 학회 성명서('25.12.)
 - 학교급별 계열성 확보 방안 마련과 고등학교 한국사 고대사 서술 비중 정상화 요구(D학회)
- ▶ 역사교육학회, 조선시대사학회 등 8개 학회 의견서('26.3.)
 - 중·고등학교 위계성·계열성을 확보하고, 전근대사·근현대사 균형 서술 교육과정 마련 요구

【역사교육 학계 의견】

- ▶ 국정과제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역사교육 강화’ 관련 역사교육연구회 간담회('25.8.)
 - “유럽 등 대다수 국가 또한 학교급이 올라가며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근현대사 위주 편성”
 - “이전 교육과정의 계열화 시도에 대한 문제 제기로 나온 대한이 현재 시대 비중 구분 구조”
- ▶ 민주시민 역사교육 현황과 방향 탐색 정책연구 설문조사(학회 의견서, '26.1.)
 - “중장기 연구를 통한 역사교육 정책 효과 점검 필요”(E학회)
 - “내용 지식을 과감히 감축하고 깊이 있는 ‘주제 중심’ 교육과정 전환 필요”(F학회)

③ 고등학교 사회과 문해력 함양 교육과정 미비

- (역사 문해력 과목 필요성) 역사 부정·왜곡 해소를 위해 역사 탐구를 토대로 주체적인 미디어 수용 태도를 함양하는 교육과정 체계 미비
 - 28 대입 개편 등으로 역사 선택과목 개설이 저조한 상황에서 학생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고 역사 문해력 함양을 위한 과목 신설 필요

【관련 정책연구】 역사 콘텐츠 과목 내용 체계 연구보고서(‘25.12.)

- ▶ (역사 문해력 함양 중요성) 학생들은 학교 밖 다양한 매체를 통해 역사 관련 정보를 접하는 상황에서 역사 관련 콘텐츠의 오류·편향성 등을 비판·분석하는 역사 문해력 중요
 - 역사 콘텐츠 왜곡 내용·정도 등에 대한 사회적 민감도가 높고 학생의 역사관 등에 큰 영향
 - ※ (학생 설문 결과, ‘25.12.) △역사 지식·정보 획득 경로(학교 수업 81.0%, 유튜브 42.3%, TV·영화 32.9% 등), △학교 밖 역사 내용이 수업과 다를 때, 사실 확인 경험 25%
- ▶ (AI 디지털 시대 미래 인재 양성) 디지털 미디어 환경 변화에 부응하여 학생의 미디어 수용 태도를 함양하는 국어, 예술, 영어 교과와 과목이 있으나, 사회과는 관련 과목 부재
 - ⇒ 해외 연구* 등에서는 온라인 환경에서의 정보 판단이 단순한 ‘독해’와 구별되는 별도의 역량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교육과정 차원에서 구조화하여 반복적 경험·학습 필요성 시사
 - * Wineburg, S., & McGrew, S. (2019). Lateral reading and the nature of expertise 등

Ⅲ. 역사 교육과정 개정 요청사항

- ◆ (개정요청 방향) 중학교 근현대사 교육여건 개선하고 학생의 역사 이해 역량 함양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수시 개정을 추진하되,
 -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정 요청사항 마련
- ※ 개정요청 사항(3개)은 교육과정 변경 여부·적용 시기 등에 대한 개별 검토·심의 요청

① 중학교 「역사」 근현대사 확대 - 중학교 「역사」 각론 개정

- (주요 내용) 중학교 「역사」 한국사 영역 근현대사 비중을 근현대사 교육 내실화 취지를 고려하여 **상향 조정**(현행 20% → 조정 30% 이상)
- ※ 중학교 「역사」 개정을 추진하되, 현행 교육과정에서 중학교 「역사」-고등학교 「한국사」 시대 비중이 관련되어 있으므로, 고등학교 「한국사」는 교원·학계 등의 의견을 바탕으로 필요시 검토

② 중학교 사회 교과군(사회·역사·도덕) 교육 시간 확보 - 총론 규정 추가

- (주요 내용) 중학교 사회 교과군 기준 수업 시수 감축 편성·운영을 제한하고, 역사 시수 자율적 확대 근거 제시(204시간 이상 편성·운영 가능)

개정요구(문안) 2022 개정교육과정 총론 수정(안) - 중학교 시간 배당 기준

- ⑤사회(역사 포함)/도덕 교과는 기준 수업 시수를 감축하여 운영할 수 없다. 다만, 역사는 역사 수업 시수와 학교자율시간 등을 활용하여 총 204시간 이상 편성·운영할 수 있다.

③ 고등학교 선택과목 신설 - 총론 개정·각론 신규 개발

- (주요 내용) 역사 탐구 과정을 통해 역사 콘텐츠를 분석·비평하며 미디어 수용 태도를 함양하는 <가칭> **역사 콘텐츠 비평·분석** 과목 신설
- 교육과정 총론 고등학교 보통교과에 신설 과목을 명시하고, 해당 과목에 대한 교육과정 각론을 신규 개발하여 신설 과목 고시
- ※ 2022 개정 교육과정 문서체계에 따라 해당 과목 내용체계(안)을 구안한 교육부 정책연구 결과('역사 콘텐츠 과목 내용 체계 연구, '25.12./서울대 이미미) 참고 요청

IV. 교육과정 개정 후속지원(안)

❖ 역사 교육과정 개정 사항이 안정적으로 현장에 안착되고 개정 취지가 구현될 수 있도록 교과서 개발과 검·인정, 교원 연수·도움 자료 개발·보급 등을 추진

① 중학교 「역사」 근현대사 확대	→	▶ 교과용 도서 개발·검정 ▶ 교원 연수·도움 자료 제작
② 중학교 사회 교과군 교육 시간 확보	→	▶ 교육과정 편성·운영 참고 자료 보급 ▶ 학교자율시간 인정 예시 과목 개발
③ 고등학교 선택과목 신설	→	▶ 교과용 도서 개발·인정 지원 ▶ 교원 연수·도움 자료 제작

○ (역사 교과서 개발·검정) 개정된 새 교육과정 취지에 따라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균형 잡힌 역사과 교과서 개발·검정 심사 추진

※ 고교 선택과목 신설될 경우, 현행 교육과정 체계에 따른 ‘교과용도서 구분 고시’에 따라 인정 교과서로 개발될 예정이며, 주관 시도교육청 선정과 인정 절차 지원 추진

○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시간 배당 기준’ 변경 사항에 대한 현장 이해도 제고를 위해 ‘교육과정 편성·운영 참고 자료*’ 개발·보급

* △개정 취지·주요 변경 사항, △편성 예시 편성표(교과 내·외 증감, 학교자율시간 활용) 등

- 학교자율시간을 활용하여 중학교 「역사」 시수를 확대 편성·운영한 학교를 지원하기 위해 학교 자율시간 예시 과목·교육자료 등 마련

○ (개정 과목 현장 이해도 제고) 평가 기준, 수업·평가 예시 자료 등을 제작하고, 선도 교원 연수 등을 통해 개정 취지·주요 변경 사항 안내

V. 향후 추진 일정

교육과정 개정('26~'27)	교육과정 적용 준비('28~'29)	교육과정 적용('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교위] 교육과정 연구·고시 - 중 「역사」 개정·총론 개정 - ‘역사 콘텐츠’ 고교 선택과목 신설 ▶ [교육부] 교과서 검인정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부·시도] 교과서 개발·검인정 - 교과서 개발('28.) - 교과서 검인정 심사('29.상) ▶ [교육부] 자료 개발·교원 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부] 교육과정 적용 ▶ [교육부] 현장 모니터링 및 후속지원 지속

첨부1

현행 중학교 「역사」 · 고등학교 「한국사」 내용 체계

□ 중학교 「역사」 한국사 영역

범주	내용 요소
국가의 형성과 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조선과 여러 나라의 형성 · 삼국과 가야의 성장 · 삼국과 가야의 문화
통일신라와 발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삼국 통일과 발해의 성립 · 통일신라와 발해의 정치 · 통일신라와 발해의 문화
고려의 성립과 변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려의 성립 · 고려의 정치적 변동과 대외 관계 · 원 간섭기 고려 사회의 변동과 개혁 · 고려의 문화와 교류
조선의 성립과 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의 성립 · 사림의 성장과 성리학적 질서의 확산 · 왜란과 호란
조선 사회의 변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왜란과 호란 이후 체제의 재정비 · 조선 후기 문화의 변화 · 조선 후기 사회 모순과 대응
근·현대 사회로의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대 국가 수립을 위한 노력 · 국권 피탈과 극복 · 민주주의의 발전 ·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과제

□ 고등학교 「한국사」

범주	내용 요소
근대 이전 한국사의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대 국가의 성장 · 고려의 통치 체제와 정치 변동 · 조선 사회의 성립과 발전 · 조선 후기의 새로운 흐름
근대 이전 한국사의 탐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 관계와 대외 교류 · 수취 체제와 경제생활 · 신분제와 사회 구조 · 사상과 문화 · 근대 이전 한국사 주제 탐구
근대 국가 수립의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 질서의 변동과 개항 · 근대 국가 수립을 위한 노력 · 사회·경제 변화와 문화 변동 · 국권 침탈과 국권 수호 운동
일제 식민 통치와 민족 운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국주의 질서와 일제의 식민 통치 정책 · 경제 구조의 변화와 경제생활 · 민족 운동의 전개와 분화 · 사회·문화의 변화와 대중운동 · 독립 국가 건설 노력
대한민국의 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냉전 체제와 대한민국 정부 수립 · 6·25 전쟁과 남북 분단의 고착화 · 민주화를 위한 노력 · 산업화의 성과와 사회·환경 문제 · 문화 변동과 일상생활
오늘날의 대한민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월 민주 항쟁 이후 민주화 과정 · 외환 위기의 극복과 사회·문화 변동 · 한반도 분단 극복과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한 노력

첨부2

교육과정 시기별 역사 과목별 시대 비중

구분		전근대(선사~조선)	근현대(개항~현대)	비고	기타 선택과목
7차 교육과정 (’02~)	중 「국사」	▶ 성취기준 70개(56%)	▶ 성취기준 56개(44%)	필수	세계사
	고 「국사」	▶ 성취기준 113개(94%)	▶ 성취기준 7개(6%)	필수	
	「근현대사」	▶ 성취기준 5개(3%)	▶ 성취기준 181개(97%)	선택	
2009 개정 (’11~)	중 「역사」	▶ 성취기준 32개(74%)	▶ 성취기준 11개(26%)	필수	세계사
	고 「한국사」	▶ 성취기준 8개(19%)	▶ 성취기준 34개(81%)	선택	동아시아사
2011 개정 (’13~)	중 「역사」	▶ 성취기준 27개(68%)	▶ 성취기준 13개(32%)	필수	세계사
	고 「한국사」	▶ 성취기준 17개(45%)	▶ 성취기준 21개(55%)	필수	동아시아사
2018 개정 (’20~)	중 「역사」	▶ 성취기준 19개(83%)	▶ 성취기준 4개(17%)	필수	세계사
	고 「한국사」	▶ 성취기준 6개(23%)	▶ 성취기준 20개(77%)	필수	동아시아사
2022 개정 (’25~)	중 「역사」	▶ 성취기준 16개(80%)	▶ 성취기준 4개(20%)	필수	세계사 동아시아사
	고 「한국사」	▶ 성취기준 9개(35%)	▶ 성취기준 17개(65%)	필수	역사로 탐구하는 현대세계

첨부3

민주시민 역사교육 현황과 방향 설문조사 결과

【‘민주시민 역사교육 현황과 방향 탐색’ 온라인 설문조사 개요】

- (목적) 역사교육 활성화 방안 수립·추진에 참고할 기초데이터 수집·이용
- (대상) 교사(초·중·고 역사 지도교사), 학생(중·고)·학부모(중·고)
 - (응답 결과) 교사 4,776명(초등 2,870명, 중등 1,906명), 학생 11,788명, 학부모 423명
- (기간) 2025.12.17.(수) ~ 2025.12.31.(수) (15일간)

□ 역사 교육과정 관련 교사 설문 결과

(단위 : 명, %)

구분	N	평균	표준 편차	전혀 동의 하지 않는다	동의 하지 않는다	보통 이다	동의 한다	매우 동의 한다	계
① 중학교 역사1(세계사)→ 역사2(한국사)의 세계사 우선 편성은 적절하다.	1,901	3.02	1.22	255 13.4%	416 21.9%	477 25.1%	535 28.1%	218 11.5%	1,901 100.0%
② 중학교 역사2(한국사 전근대사 중심)→ 고등학교 한국사1·2(한국사 근현대사 중심)의 한국사 이어배우기 구성은 적절하다.	1,901	3.25	1.19	200 10.5%	311 16.4%	444 23.4%	702 36.9%	244 12.8%	1,901 100.0%
③ 중학교 한국사의 전근대사와 근현대사 비중은 적절하다. (6개 대주제 중 전근대 5 : 근현대 1)	1,901	2.83	1.15	266 14.0%	521 27.4%	499 26.2%	491 25.8%	124 6.5%	1,901 100.0%
④ 고등학교 한국사의 전근대사와 근현대사 비중은 적절하다. (6개 대주제 중 전근대 2 : 근현대 4)	1,901	3.08	1.12	186 9.8%	407 21.4%	520 27.4%	640 33.7%	148 7.8%	1,901 100.0%
⑤ 고등학교 선택과목 (일반 선택: 세계사, 진로 선택: 동아시아 역사기행, 융합 선택: 역사로 탐구하는 현대세계)의 편성은 적절하다.	1,901	2.70	1.11	353 18.6%	411 21.6%	667 35.1%	398 20.9%	72 3.8%	1,901 100.0%

첨부4 해외 주요국 역사·국사 교육과정 사례

□ 영국 역사교육 현황

- ▶ 영국 역사 교육과정은 연대기적 서사와 역사적 사고의 절충을 추구한 것으로 평가
- 학생들의 탐구력을 키우는 역량 중심의 역사적 사고 학습과 더불어 역사적 사실 이해를 함께 추구 → 역사를 아는 것과 역사를 구성하는 것 두 지점을 함께 추구

구분	주요 학습 내용
[필수]주요단계 1 (초등, 1~2학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들의 기억 내 변화 • 국가적, 국제적으로 주요한 기억 내 사건 • 국내나 국제적으로 기여한 과거의 주요 인물 • 학생들의 지역 내에서 중요한 사건, 인물, 장소
[필수]주요단계 2 (초등, 3~6학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국의 석기 시대에서 철기 시대로의 변화 • 로마 제국과 로마 제국이 영국에 끼친 영향 • 참회자 에드워드 시기까지 바이킹과 앵글로 색슨의 영국 왕국을 위한 투쟁 • 1066년 이후 영국 역사의 한 측면이나 주제에 대한 탐구 • 초기 문명의 성과: 최초 문명이 등장한 장소와 시기에 대한 개관 • 지역사 학습
[필수]주요단계 3 (중등, 7~9학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세 영국 1066-1509년의 교회, 국가 및 사회의 발전 • 1509~1745년 영국의 교회, 국가 및 사회 발전 • 1745년~1901년 사상, 정치 권력, 산업 및 제국 • 영국, 유럽 및 더 넓은 세계를 위한 도전: 1901년부터 현재까지 • 지역사 학습 • 세계사에서 중요한 적어도 하나의 사회나 쟁점, 그리고 이와 상호 연관된 다른 세계의 발전 탐구
[선택]주요단계 4 (중등, 10~11학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 개의 시대: 중세, 근세, 근대의 역사 • 세 개의 시간 규모: 단기간, 단기간과 장기간의 중간 기간 학습, 장기간 • 세 개의 지리적 맥락: 지방, 영국, 유럽과 넓은 세계

□ 독일 역사교육 현황(바이에른주 김나지움 역사 교육과정)

- ▶ 독일은 학교 교육이 추구하는 민주주의교육, 평화교육, 문화교육에 역사 과목이 바탕을 이루고 있으며, 역사적 사료를 해석·판단하고 자신의 역사관을 정립하는데 중점
- 대학입학자격시험인 아비투어 시험에서도 ‘사실 역량’, ‘방법 역량’, ‘판단 역량’에 기반하여 서·논술형 평가의 형태로 1800년대 이후 20세기 독일 역사 문항 출제

〈 바이에른주 김나지움 역사 교육과정 〉

구분	주요 학습 내용
6·7학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류사 초기~프랑크 제국 • 중세~절대왕정
8·9학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몽주의 시대~제1차 세계대전 • 바이마르 공화국~제2차 세계대전 후 냉전 시기
10학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탈냉전, 유럽통합, 전지구화 등 현대세계의 변화
11~12학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 주제에 대한 관점과 해석을 비교 분석하는 세미나식 수업 (20세기 현대사 쟁점 중심 학습)

〈 바덴-뷔템베르크 주 역사 교육과정 〉

구분	주요 학습 내용
5·6학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사 과목과의 첫 만남 • 고대 이집트 • 고대 그리스와 로마 • 고대 후기와 유럽의 중세 초기
7·8학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세의 유럽 • 근대로의 전환 • 프랑스 대혁명 • 프랑스 대혁명 이후의 유럽 • 산업화된 국민국가 • 제국주의와 제1차 세계 대전 • 양차 세계 대전 사이의 유럽
9·10학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사회주의와 제2차 세계대전 • 서독과 동독 • 냉전 공간 • 러시아 • 중국 • 오스만 제국과 터키
11~12학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구 근대화의 길 • 근대화의 길 • 의회 민주주의의 대항으로서의 20세기 독재 • 20세기의 통치 모델 • 1945년 이후의 서유럽과 동유럽 • 1945년 이후의 서유럽과 동유럽 • 역사적 관점에서의 탈식민적 공간의 현재 문제

□ 프랑스 역사교육 현황

- ▶ 프랑스의 역사교육은 초기 ‘공화국 시민’을 교육한다는 목표에서 프랑스 식민지 지배 역사, 민족·문화 다양성 등 다양한 관점에 대한 통합적 이해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화
- 교육과정 안에서 사료를 비판적으로 해석하고 가설과 주장을 증명하는 과학적 절차를 중점적으로 배우며 학생의 비판적 사고 육성 목표 → 비판 정신 함양 지향

구분	주요 학습 내용
CM1·2 (초등 4~5학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랑스 이전(선사시대~10세기) • 왕들의 시대(11~18세기) • 혁명과 제국의 시대(18~19세기) • 프랑스 공화정 • 프랑스의 산업화 • 세계 대전에서 유럽연합까지
6e,5e,4e,3e (중학교 1~4학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류의 오랜 역사와 이주 • 지중해 문명-신앙과 시민성 • 고대 로마 제국 • 기독교와 이슬람, 세계들의 만남 • 서구 봉건사회에서 사회와 교회, 정치권력 • 16~17세기 유럽의 전환과 세계로의 개방 • 18세기의 팽창, 계몽, 혁명 • 19세기 유럽(산업혁명과 식민화) • 19세기 프랑스의 사회·문화·정치 • 유럽과 양차 세계대전 • 1945년 이후의 세계 • 프랑스 공화국과 사회
2e,1e (고등학교 1~2학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사의 유럽인들 • 고대 세계에서 시민성의 발명 • 중세 유럽의 사회와 문화 • 근대의 새로운 지리적 지평과 유럽인들의 문화 • 현대 여명기의 혁명, 자유, 민족들 • 19세기 중반 이후의 경제성장, 지구화, 사회 변동 • 20세기의 전쟁들 • 전체주의의 세기 • 식민주의와 탈식민화 • 프랑스인들과 공화국
TL (고등학교 3학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거와 현재사회의 관계 • 19세기 말 이후 유럽 내 이데올로기와 여론 • 1차 세계대전 이후 현대까지 세계 강대국과 긴장들 •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내 통치 체계

□ 미국 역사교육 현황(국가역사교육과정 미국사 영역)

- ▶ 미국의 국가역사교육과정은 학생의 역사적 사고력과 이해를 증진시키는데 목적
 ⇒ 역사적 사고력은 역사적 증거 평가, 비교 및 인과관계 분석, 역사적 기록 해석과 현대 생활에서 의사결정에 영향을 끼치는 역사적 주장과 관점을 적절히 구상할 수 있는 능력
 ⇒ 역사적 이해는 과거 기록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현대 사회의 이슈와 시민으로서 직면하는 문제를 다루는 데 필요한 역사적 관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

구분	주요 학습 내용
5~12학년 사이 최소 3개년 이상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 세계의 만남(~1920년) • 식민지화와 정착(1585~1763년) • 혁명과 새로운 국가(1754~1820년대) • 확장과 개혁(1801~1861년) • 남북전쟁과 재건(1850~1877년) • 미국 산업의 발전(1870~1900년) • 현대 미국의 출현(1890~1930년) • 대공황과 제2차 세계대전(1929~1945년) • 전후 미국(1945~1970년대 초) • 현대 미국(1968년~현재)

□ 호주 역사교육 현황

- ▶ 호주의 역사 교육과정은 ‘역사 지식과 이해’, ‘역사 탐구와 기술’을 강조하고 있으며, 특정 사건이나 인물에 대한 강조보다는 역사적 탐구 기술을 통한 계열화를 시도

구분	주요 학습 내용
초등 (F~7학년)	F. 나의 세계 1. 나의 세계는 과거와 어떻게 다르며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 2. 사람과 장소에서 찾는 우리의 과거와 현재 3. 다양한 커뮤니티와 장소 및 사람들의 기여 4. 과거와 현재에 있어 사람과 장소, 그리고 환경은 어떻게 상호작용 했나 5. 호주인의 공동체: 과거, 현재, 가능한 미래들 6. 과거와 현재의 호주와 다양한 세계의 연결 7. 지속 가능한 과거들, 현재와 미래
중등 (7~10학년)	7. 고대의 세계(BC 6000~AD 650년) 8. 고대에서 근대 세계로(650년~1750년) 9. 근대 세계의 형성(1750년~1918년) 10. 근대 세계와 호주(1918~현재)

□ 일본 역사교육 현황

- ▶ 일본은 일본사와 세계사 간 연계성·통합적 이해를 강조하고 있으며, 이에 2018년 학습지도요령 개정으로 근현대 세계사와 일본사를 통합하는 ‘역사종합’ 필수과목 개설
 ⇒ ‘역사 종합’은 주제·질문 중심의 학습을 통해 자료를 활용한 역사 학습법을 습득하고, 현대의 다양한 문제와 관련이 있는 근현대의 역사를 고찰하는데 중점

구분	주요 학습 내용
<p>[필수]역사 종합 (고등학교)</p>	<p>A. 역사의 문 (1) 역사와 우리들 (2) 역사의 특질과 자료</p> <p>B. 근대화와 우리들 (1) 근대화로의 질문 (2)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세계와 일본의 개국 (3) 국민국가와 메이지유신 (4) 근대화와 현대적인 제 과제</p> <p>C. 국제질서의 변화와 대중화와 우리들 (1) 국제질서의 변화와 대중화로의 질문 (2) 제1차 세계대전과 대중사회 (3) 경제위기와 제2차 세계대전 (4) 국제질서의 변화와 대중화와 현대적 제 과제</p> <p>D. 글로벌화하는 우리들 (1) 글로벌화로의 질문 (2) 냉전과 세계 경제 (3) 세계질서의 변용과 일본 (4) 현대적인 제과제의 형성과 전망</p>
<p>[선택]일본사탐구 (고등학교)</p>	<p>A. 원시·고대의 일본과 동아시아 (1) 여명기 일본열도와 역사적 환경 (2) 역사자료와 원시·고대의 전망 (3) 고대의 국가·사회의 전개와 획기</p> <p>B. 중세 일본과 세계 (1) 중세로의 전환과 역사적 환경 (2) 역사 자료와 중세의 전망 (3) 중세의 국가·사회의 전개와 획기</p> <p>C. 근세 일본과 세계 (1) 근세로의 전환과 역사적 환경 (2) 역사자료와 근세의 전망 (3) 근세의 국가·사회의 전개와 획기</p> <p>D. 근현대 지역·일본과 세계 (1) 근대로의 전환과 역사적 환경 (2) 역사자료와 근대의 전망 (3) 근현대 지역·일본과 세계의 획기와 구조 (4) 현대 일본의 과제 탐구</p>

첨부5

중학교 「역사」 교과용도서 '편찬상의 유의점' 학습 요소

성취기준	학습 요소
[9역01-01]	역사의 의미, 역사 학습의 목적
[9역01-02]	역사 탐구 방법
[9역02-01]	선사 문화, 문명의 형성
[9역02-02]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헬레니즘, 크리스트교
[9역02-03]	춘추·전국 시대, 진·한, 제자백가, 불교, 마우리아 왕조·쿠산 왕조, 동서 문화의 교류
[9역03-01]	위진 남북조, 수·당, 동아시아의 문화
[9역03-02]	사산 왕조 페르시아, 굽타 왕조, 지중해 세계의 변화, 이슬람 세계
[9역03-03]	봉건 질서, 중세 도시의 성장, 교황권, 십자군 전쟁, 지중해 무역권
[9역04-01]	송, 몽골 제국, 유라시아·인도양 교역권의 성장
[9역04-02]	명·청, 에도 막부, 무굴 제국
[9역04-03]	오스만 제국, 신헌로 개혁, 교역의 확대, 종교 개혁
[9역05-01]	미국 혁명, 프랑스 혁명, 국민 국가 형성, 라틴 아메리카 독립
[9역05-02]	서양의 산업화와 사회 변화, 제국주의
[9역05-03]	아시아의 반제국주의 운동, 아시아의 국민 국가 건설 운동
[9역06-01]	1·2차 세계 대전, 러시아 혁명, 대공황, 전체주의
[9역06-02]	홀로코스트, 일본군'위안부', 난징 대학살, 국제기구
[9역06-03]	아시아·아프리카 지역의 민족 운동
[9역07-01]	냉전, 제3 세계, 사회주의 진영 붕괴, 유럽 연합
[9역07-02]	민권의 신장, 여성 운동, 평화와 환경 보호를 위한 노력, 노동자 권리 보호
[9역07-03]	세계화에 따른 변화
[9역08-01]	고조선, 여러 나라의 사회 모습
[9역08-02]	삼국의 체제 정비, 가야의 성장
[9역08-03]	삼국과 가야의 문화유산과 교류
[9역09-01]	고구려와 수당 전쟁, 삼국 통일, 발해의 성립
[9역09-02]	통일신라와 발해의 체제 정비, 호족의 성장
[9역09-03]	통일신라와 발해의 문화유산
[9역10-01]	후삼국 통일, 고려의 체제 정비
[9역10-02]	문벌의 형성과 갈등, 무신 정변, 대외 관계
[9역10-03]	원 간섭기 고려의 변화, 공민왕의 개혁, 권문세족, 성리학의 수용과 신진사대부
[9역10-04]	고려의 문화유산, 경제·문화적 대외 교류
[9역11-01]	조선의 체제 정비, 사대교린 정책, 훈민정음과 과학 기술
[9역11-02]	사림, 서원과 향약
[9역11-03]	임진왜란, 병자호란
[9역12-01]	북벌론, 대동법, 봉당 정치, 탕평 정치
[9역12-02]	실학, 서학, 서민문화
[9역12-03]	삼정 문란, 세도 정치, 농민 봉기, 흥선 대원군의 정책
[9역13-01]	개항, 개화 정책의 추진과 갈등, 동학 농민 운동, 독립 협회, 대한 제국, 독도
[9역13-02]	3·1 운동, 대한민국 임시 정부, 국내외 민족 운동
[9역13-03]	대한민국 정부 수립, 6·25 전쟁, 4·19 혁명, 5·18 민주화 운동, 6월 민주 항쟁
[9역13-04]	지속 가능한 발전, 평화 통일을 위한 노력

첨부6 17개 시도 중학교 사회과 시수 운영 현황

※ (표본 집계 방식) 특별시·광역시는 1개 구, 도는 시와 군 각 1개를 임의 선정

구분		감 운영							기준	증 운영			총계
운영 시수		408	425	442	459	476	493	소계	510	544	578	소계	
시수 증감량		-102	-85	-68	-51	-34	-17		0	+34	+68		
서울	학교수	1	0	0	1	4	0		6	1	0	1	13
	비율	7.7	0	0	7.7	30.7	0	46.15	46.15	7.7	0	7.7	100
부산	학교수	0	0	0	2	9	2	0	0	0	0	0	13
	비율	0	0	0	15.4	69.2	15.4	0	0	0	0	0	100
대구	학교수	0	1	0	0	6	1	8	8	0	0	0	16
	비율	0	6.25	0	0	37.5	6.25	50	50	0	0	0	100
인천	학교수	1	0	9	0	5	0	15	0	0	0	0	15
	비율	6.7	0	60	0	33.3	0	100	0	0	0	0	100
광주	학교수	1	0	0	0	0	0	1	4	0	0	0	5
	비율	20	0	0	0	0	0	20	80	0	0	0	100
대전	학교수	0	0	1	0	6	0	7	13	0	0	0	20
	비율	0	0	5	0	30	0	35	65	0	0	0	100
울산	학교수	0	0	0	0	7	2	9	0	0	0	0	9
	비율	0	0	0	0	77.8	22.2	100	0	0	0	0	100
세종	학교수	0	0	1	0	7	0	8	19	1	0	1	28
	비율	0	0	3.6	0	25	0	28.6	67.8	3.6	0	3.6	100

구분		감 운영							기준	증 운영			총계
운영 시수		408	425	442	459	476	493	소계	510	544	578	소계	
시수 증감량		-102	-85	-68	-51	-34	-17		0	+34	+68		
경기	학교수	0	0	0	0	5	2	7	9	1	0	1	17
	비율	0	0	0	0	29.4	11.8	41.2	52.9	5.9	0	5.9	100
강원	학교수	0	0	2	0	8	1	11	5	0	0	0	16
	비율	0	0	12.5	0	50	6.25	68.75	31.25	0	0	0	100
충북	학교수	0	0	0	0	5	0	5	16	1	0	1	22
	비율	0	0	0	0	22.7	0	22.7	72.8	4.5	0	4.5	100
충남	학교수	0	0	1	0	1	1	3	19	0	0	0	22
	비율	0	0	4.5	0	4.5	4.5	13.6	86.4	0	0	0	100
전북	학교수	0	0	0	1	9	0	10	22	1	0	1	33
	비율	0	0	0	3	27.3	0	30.3	66.7	3	0	3	100
전남	학교수	0	0	0	2	10	3	15	14	1	0	1	30
	비율	0	0	0	6.7	33.3	10	50	46.7	3.3	0	3.3	100
경북	학교수	1	0	0	0	8	0	9	10	1	1	2	21
	비율	4.8	0	0	0	38.1	0	42.9	47.6	4.8	4.8	9.5	100
경남	학교수	1	0	3	3	6	4	17	4	0	0	0	21
	비율	4.8	0	14.3	14.3	28.6	19	81	19	0	0	0	100
제주	학교수	0	0	0	0	9	0	9	21	0	0	0	30
	비율	0	0	0	0	30	0	30	70	0	0	0	100

첨부7 '역사콘텐츠 내용 체계 개발' 정책연구 정보

《 역사 콘텐츠 과목 내용 체계 정책연구 개요 》

- (연구기간/연구진) '25.11.~12. / 서울대 이이미 교수 외 4명
- (연구 내용) ①국내외 연구 동향, ②과목 개설 필요성, ③내용 체계(안) 개발

□ 과목 개발 필요성

- (민주시민 역량 강화) 역사 사실에 근거하여 판단·실천하는 과정을 통해 민주사회 구성원으로서 역량을 강화하는 과목 필요
- (역사 문해력 함양) 디지털 시대 역사 정보의 생산·유통이 확대되면서 오류, 편향된 해석을 비판·분석하는 역사 문해력* 중요
 - * 출처를 확인하고 저자의 의도와 관점을 분석하며 서로 다른 자료를 비교·대조하여 역사적 주장과 해석의 근거를 판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스스로 논증하는 능력
- (AI 디지털 시대 인재 양성) AI 기술 발전과 디지털 전환으로 2022 개정 교육과정 내 여러 교과에서 매체(미디어) 관련 과목 개설
 - 다만, 사회과는 관련 과목이 없어 디지털 소양 함양 과목 필요

□ 과목 내용 체계

- (과목 성격·목표) 역사 콘텐츠를 이해·분석·활용·성찰하며, 역사 문해력을 함양하고 역사 콘텐츠 기획·구성 과정을 학습

영역	내용 요소
역사 콘텐츠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사 콘텐츠의 의미와 종류 • 역사 콘텐츠의 기능과 영향 • 역사 콘텐츠의 특징
역사 콘텐츠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사 콘텐츠의 내용과 출처 • 역사 해석과 증거 • 역사 해석의 다양성
역사 콘텐츠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제 선정과 역사 콘텐츠의 조사·분석 • 역사 콘텐츠의 기획·구성 • 역사 콘텐츠의 공유
역사 콘텐츠 성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상 속 역사 콘텐츠 • 활용과 성찰에 요구되는 자세

I. 검토 개요

구분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관련
검토 안건	중·고등학교 역사 관련 「2022 개정 교육과정」 개정 요청
주요 내용	<p>❖ 개정 요청 사항(3개)은 교육과정 변경 여부·적용 시기 등에 대한 개별 검토·심의 요청</p> <p>【1. 중학교 「역사」 근현대사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역사교육 활성화 방안' 근현대사 교육 내실화 취지를 고려하여 중학교 「역사」 한국 근현대사 성취기준 비중 상향 조정(현행 20% → 조정 30% 이상) - (개정 사항) 중학교 「역사」 각론을 개정하여 내용 체계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학교 「역사」 개정을 추진하되, 현행 교육과정에서 중학교 「역사」 - 고등학교 「한국사」 시대 비중이 관련되어 있으므로, 고등학교 「한국사」는 교원·학계 등의 의견을 바탕으로 필요시 검토 <p>【2. 중학교 사회 교과군(사회·역사·도덕) 교육 시간 확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학교 사회 교과군 기준 수업 시수 감축 편성·운영을 제한하고, 역사 시수 자율적 확대 근거 제시(204시간 이상 편성·운영 가능) - (개정 사항) 교육과정 총론 중학교 편제와 시간 배당 기준에 단서 규정* 삽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⑤ 사회(역사 포함)/도덕 교과는 기준 수업 시수를 감축하여 운영할 수 없다. 다만, 역사는 역사 수업 시수와 학교자율시간 등을 활용하여 총 204시간 이상 편성·운영할 수 있다. <p>【3. 고등학교 선택과목 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사 탐구 과정을 통해 역사 콘텐츠를 분석·비평하며 미디어 수용 태도를 함양하는 <가칭>역사 콘텐츠 비평·분석 고등학교 선택과목 신설 - (개정 사항) 교육과정 총론 고등학교 보통교과 개정·각론 개발

II. 검토 기간

검토 기간	2026. 4. 8. ~ 2026. 6. 1.
-------	---------------------------

III. 검토 결과

<p>❖ 본 전문위원회는 중·고등학교 역사 관련 「2022 개정 교육과정」 개정 요청에 대한 사전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제출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전문위원회는 교육부의 개정 요청에 대해 사회적 필요성, 교육적 타당성, 2022 개정 교육과정 취지와 부합성, 개정의 시급성, 실현 가능성, 교육과정 제도의 안정성 등을 중심으로 충실하고 심층적인 논의를 진행하였음 - 교육부 요청에 따라 각 요청 사항별로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진행 여부에 대해 사전 검토한 결과, 요청 사항별로 수립·변경 진행에 대해 위원들이 동의한 정도가 다르고 이견이 존재함 - 각 요청 사항별 사전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음
--

[검토 의견]

1. 중학교 「역사」 근현대사 확대

❖ 본 전문위원회는 중학교 「역사」 근현대사 확대 요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검토 결과를 제출함

- 교육부가 요청한 중학교 「역사」 근현대사 확대에 대해 반대 의견이 비교적 우세함
- 다만, 민주시민교육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형성함

○ 중학교 「역사」 근현대사 확대 관련,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진행에 찬성하는 의견

- 최근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역사 왜곡에 대응하기 위해 중학교 수준에서 근현대사 교육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학생들의 민주시민 역량 함양을 위해 중학교 단계에서 근현대사 교육 확대 필요
- 현행 중학교 역사 교육과정에서 근현대사 비중이 적고 축약되어 있음.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고등학교에서 심화 학습할 수 있도록 근현대사 내용 확대 필요
- 국가교육과정은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수시 개정을 추진할 수 있으며, 근현대사 비중 확대 역시 이러한 취지에서 검토 가능
- 성취기준을 부분 개정하여 교과서를 전면 개편하지 않는 경우 과도한 비용 수반 및 교과서의 개편으로 초래될 문제는 없다는 의견

○ 중학교 「역사」 근현대사 확대 관련,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진행에 반대하는 의견

-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아직 전체 학년에 적용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재·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국가교육과정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약화
- 현행 2022 개정 교육과정은 중학교와 고등학교 역사교육 간 계열성과 중복 최소화를 고려하여 설계된 것으로, 이번 요청사항은 역사교육계에서도 논란이 있음
- 교육과정 변경 시 교과서 재개발, 재검정 등 불필요한 행정 절차 및 비용 발생 우려
- 민주시민교육은 근현대사 교육 확대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님
- 현행 교육과정 체제 내에서도 교사의 교육과정 자율성, 재구성 및 전문성을 통해 근현대사 교육 강화 가능

2. 중학교 사회 교과군(사회·역사·도덕) 교육 시간 확보

❖ 본 전문위원회는 중학교 사회 교과군(사회·역사·도덕) 교육 시간 확보 요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검토 결과를 제출함

- 교육부가 요청한 중학교 사회 교과군(사회·역사·도덕) 교육 시간 확보에 대해 부정적 의견이 대다수임
- 논의 결과, 학교 교육과정 자율성, 교과 간 형평성, 총론 체계의 정합성 등을 고려했을 때, 개정의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음

- **중학교 사회 교과군 교육 시간 확보 관련,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진행에 찬성하는 의견**
 - 최근 역사 왜곡 등 새로운 사회문제의 등장에 따라 역사교육 강화 취지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역사 시수 확보 필요
 - 사회 교과군 시수에는 역사뿐 아니라 사회, 도덕 시수를 포함하기 때문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취지에 부합
 - 역사 시수 확대 시 토의·토론 및 프로젝트 수업, 체험 중심 프로그램 등 학생 참여형 수업의 활성화 가능
- **중학교 사회 교과군 교육 시간 확보 관련,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진행에 반대하는 의견**
 - 개정 요청은 2022 개정 교육과정이 강조한 학교 교육과정 자율성 원칙과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
 - 특정 교과 시수 확대는 다른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수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
 - 교과 간 형평성 문제와 학교 현장의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
 - 이미 현행 총론 체계에서도 학교가 필요에 따라 특정 교과 시수를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단서 규정 신설은 불필요
 - 역사교육 강화는 시수 확대보다 교수·학습 방법 개선 및 교육과정 재구조화 등으로 가능 (근현대사 관련 기념일과 연계한 학습 방법 제안)

3. 고등학교 선택과목 신설

- ❖ **본 전문위원회는 고등학교 선택과목 신설 요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검토 결과를 제출함**
 - 교육부가 요청한 고등학교 선택과목 신설에 대해 반대 의견이 비교적 우세함
 - 다만, 학생들의 비판적 미디어 수용 역량 함양 필요성 자체에는 공감대가 있었음

- **고등학교 역사 선택과목 신설 관련,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진행에 찬성하는 의견**
 - AI 생성물의 범람 및 디지털 환경에서 학생들이 역사 왜곡 및 허위 정보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는 만큼, 역사 콘텐츠를 비판적으로 해석하는 역사 문해력 교육 강화 필요
 - 현행 고등학교 역사 선택과목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상황에서 역사 관련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을 위해 선택과목 신설 필요
 - 역사 콘텐츠 비평·분석 고등학교 선택과목 신설은 시대사 중심의 역사교육을 보완하고 탐구 중심 교육 기회 제공
 - 역사 콘텐츠 비평·분석 고등학교 선택과목 신설은 암기 중심 역사교육을 넘어 시민 역량 중심의 역사교육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음
 - 각종 미디어, 드라마, 영화 등에서 다루고 있는 콘텐츠에 대한 비판적 사고력 함양 등을 위해 사회교과군을 융합한 선택과목 신설 필요

○ **고등학교 역사 선택과목 신설 관련,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진행에 반대하는 의견**

- 2022 교육과정 개발 과정에서 선택과목은 사회, 도덕 등 관련 교과 간 형평성이 고려된 것임
- 최근 사회문제에 대한 이해와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역사 교과 내용뿐만 아니라 사회, 도덕 교과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융합 성격의 과목으로 신설 필요
- 미디어 리터러시 및 비판적 정보 수용 역량은 이미 국어, 사회, 정보 등 다양한 교과에서 다루고 있으며, 별도의 역사 선택과목 신설 필요성 및 시급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음
- 학교 여건에 따라 선택과목 신설이 실효적이지 않을 수 있으며, 향후 타 교과에서 유사한 개정 요청으로 이어질 수 있음
- 개정 요청 취지는 현행 교육과정 내 교수·학습 개선이나 고시 외 과목 운영 등을 통해서도 충분히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

4. 특수교육 교육과정

- 1~3 개정 요청에 따라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을 추진할 경우, 특수교육 교육과정도 함께 수립·변경 추진 필요

2026. 6. 1.

국가교육과정 전문위원회 위원장

I. 의견 수렴 개요

구분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검토 안건	중·고등학교 역사 관련 「2022 개정 교육과정」 개정 요청
주요 내용	<p>❖ 개정요청 사항(3개)은 교육과정 변경 여부적용 시기 등에 대한 개별 검토·심의 요청</p> <p>[1. 중학교 「역사」 근현대사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역사교육 활성화 방안' 근현대사 교육 내실화 취지를 고려하여 중학교 「역사」 한국 근현대사 성취기준 비중 상향 조정(현행 20%→조정 30% 이상) - (개정 사항) 중학교 「역사」 각론을 개정하여 내용 체계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학교 「역사」 개정을 추진하되, 현행 교육과정에서 중학교 「역사」 - 고등학교 「한국사」 시대 비중이 관련되어 있으므로, '고등학교 「한국사」'는 교원학계 등의 의견을 바탕으로 필요시 검토 <p>[2. 중학교 사회 교과군(사회·역사·도덕) 교육 시간 확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학교 사회 교과군 기준 수업 시수 감축 편성·운영을 제한하고, 역사 시수 자율적 확대 근거 제시(204시간 이상 편성·운영 가능) - (개정 사항) 교육과정 총론 중학교 편제와 시간 배당 기준에 단서 규정* 삽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역사 포함)/도덕 교과는 기준 수업 시수를 감축하여 운영할 수 없다. 다만, 역사는 역사 수업 시수와 학교자율시간 등을 활용하여 총 204시간 이상 편성·운영할 수 있다. <p>[3. 고등학교 선택과목 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사 탐구 과정을 통해 역사 콘텐츠를 분석·비평하며 미디어 수용 태도를 함양하는 <가칭>역사 콘텐츠 비평·분석 고등학교 선택과목 신설 - (개정 사항) 교육과정 총론 고등학교 보통교과 개정·각론 개발

II. 의견 수렴 기간 및 참여 현황

검토 기간	'26. 4. 27. ~ '26. 6. 1.				
참여 현황	계(323명)	교원(221명)	학생(34명)	학부모(34명)	전문가(34명)
	235명 (72.8%)	159명 (71.9%)	19명 (55.9%)	25명 (73.5%)	32명 (94.1%)

III. 주요 의견

<p>① (중학교 「역사」 근현대사 확대) 수립·변경 진행에 대해 동의 의견이 다수 제시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동의하는 이유</u>로는 △현대 사회 이해 및 민주시민 역량 함양 필요, △역사 왜곡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 신장, △역사 교육 내용의 시대별 균형성 제고, △역사 수업 개선 필요, △학교급별 학습 연계성 강화 필요 등이 제시되었으며, 개정 시 고려 사항으로는 성취기준 확대 등 양적 확대보다는 탐구·토론 중심의 교수·학습 방법 개선 등 질적 내실화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도 제시됨
--

- 동의하지 않는 이유로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안착 전 수시 개정은 부적절, △교육과정 수립·변경에 대한 구체적 방안·근거 및 사회적 합의 부족, △학교급별 전 과정에 걸친 전근대사/근현대사 비중의 균형 및 계열성 훼손 우려 등이 제시됨

② (중학교 사회 교과군(사회·역사·도덕) 교육 시간 확보) 수립·변경 진행에 대해 동의 의견보다 동의하지 않는 의견이 비교적 많은 경향을 보임

- 동의하는 이유로는 △민주시민 교육 강화를 위한 안정적 운영 시수 확보 필요, △사회 교과군 시수 감축 최소화를 통해 사회 교과군 안정적 운영 도모, △근현대사 교육 내실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탐구·토론 수업 확대를 위한 시수 확보 등이 제시되었으며, 개정 시 고려사항으로 타 교과와의 갈등 방지 및 소통, 협력 방안 마련 필요 등이 제시됨

- 동의하지 않는 이유로는 △사회 교과군 교육 시간 감축 운영 제한 시 타 교과 시수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교과 간 갈등 우려,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자율성 침해, △개정의 타당성 및 실효성 부족, △국가교육과정의 안정적 운영 및 신뢰도 저하, △교원 수급 문제 등 현장의 부담 증가, △사회 교과군 시수 확보가 역사 교과 시수로 연결되지 않을 가능성, △현행 교육과정에서도 학교자율 시간을 활용한 시수 확보 가능하다는 의견 등이 제시됨

③ (고등학교 선택과목 신설) 수립·변경 진행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의견보다 동의 의견이 비교적 많은 경향을 보임

- 동의하는 이유로는 △역사 문해력, 비판적 사고력 함양 필요, △학생 과목 선택권 확대 필요, △역사 왜곡 및 부정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 함양 필요 등이 제시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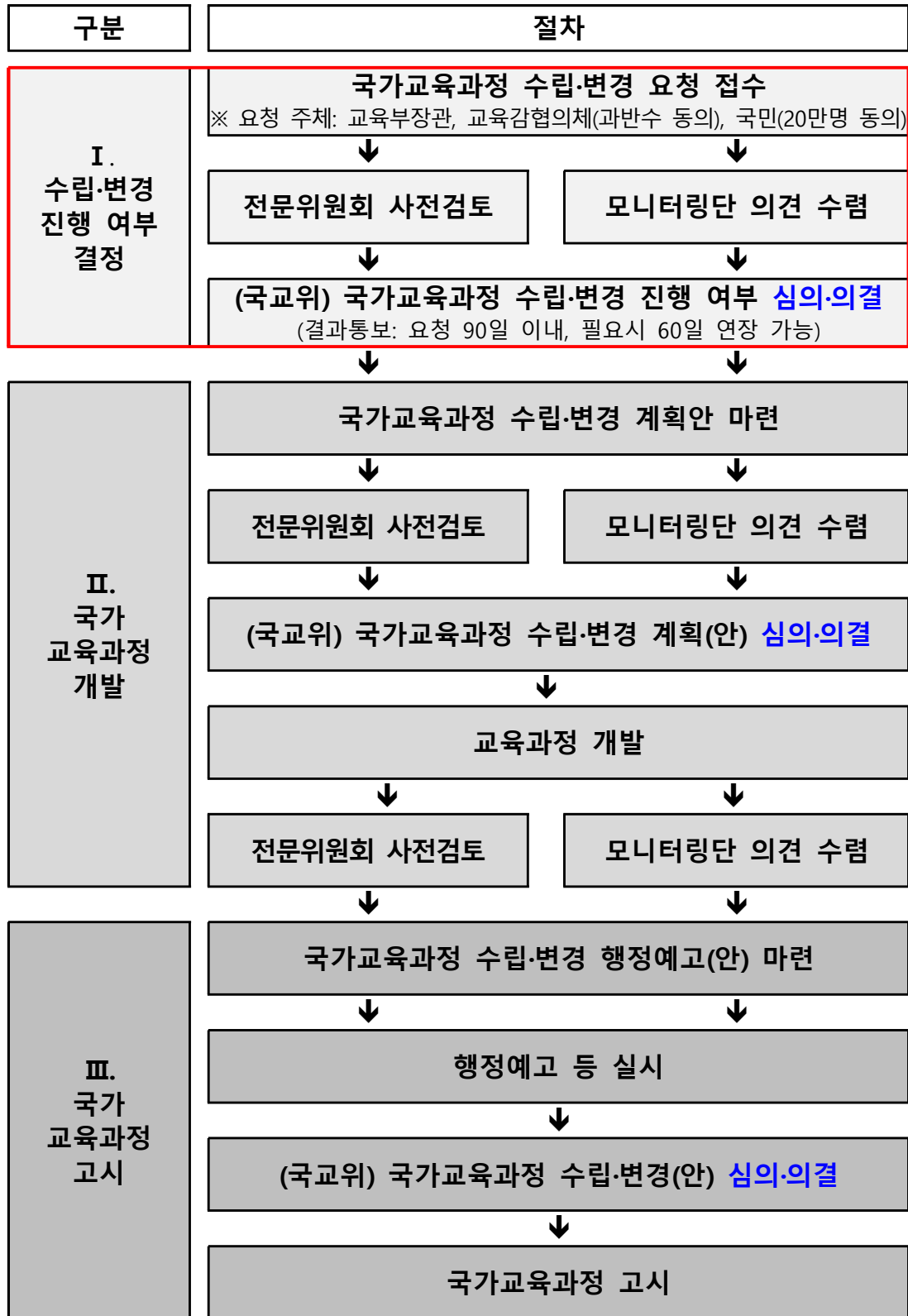
- 동의하지 않는 이유로는 △선택과목 신설의 실효성 우려, △기존 개설된 과목으로도 충분히 실현 가능, △2022 개정 교육과정 안착 전 수시 개정 부적절, △학생의 학습 부담 가중 등 의견이 제시됨

④ (기타 의견) 개정 추진 시 특수교육 교육과정의 공통 교육과정에도 개정 관련 사항 반영 필요

2026. 6. 1.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 단장

□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절차



※ (관련 법령) 「국가교육위원회법 시행령」제10조

□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관련 법령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2조

제12조(국가교육과정 기준 및 내용의 고시 등) ① 위원회는 국가교육과정(「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고시한 국가교육과정에 대하여 조사·분석 및 점검을 할 수 있고, 그 결과를 국가교육과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그 밖에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

제10조(국가교육과정 기준과 내용의 수립·변경 등) ① 국가교육위원회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가교육발전계획의 수립, 교육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수립 또는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정해야 한다.

- ② 국가교육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청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립 또는 변경의 진행 여부를 심의·의결해야 한다.
 - 1. **교육부장관**이 새로운 교육 수요 등을 고려하여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새로 수립하거나 종전의 기준과 내용을 변경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 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에 따른 **교육감 협의체**가 시·도 교육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새로 수립하거나 종전의 기준과 내용을 변경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 3.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가교육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국가교육과정 기준과 내용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국민의견**에 대해 게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동의하는 사람의 수가 20만명 이상인 경우**
- ③ 국가교육위원회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요청 등이 있는 날(같은 항 제3호의 경우에는 국민의견 게시일로부터 3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같은 항에 따른 심의·의결 결과를 요청기관 등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심의·의결하지 못했을 때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④ 국가교육위원회는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추진 일정·내용 및 적용 대상 등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국가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해야 한다.
- ⑤ 국가교육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확정된 계획을 지체 없이 국가교육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 ⑥ 국가교육위원회는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국가교육과정 기준과 내용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의 의견과 제18조제1항제2호의 전문위원회의 사전검토 의견을** 들어야 한다.